

[P1 - 16]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비 인지 만성질환자의 영양섭취상태

이행신*, 김복희, 장영애,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영양팀

Nutrient intake status of subjects with chronic disease(s) diagnosed before self-recognition in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aeng Shin Lee*, Bok Hee Kim, Young Ai Jang, Cho-il Kim.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식생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 11월~12월
에 실시된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검진조사와 영양조사 결과에 대한 연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전국 200개 조사구 4,000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검진조사결과에서 30세 이상의 성인 대
상자를 다음 4개 질환의 임상진단기준과 각 만성질환에 대한 본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기(既) 인
지(認知) 질환자, 비(比) 인지(認知) 질환자 및 비(比) 질환자(대조군)의 3 그룹으로 구분하였
다: 2회 평균 수축기혈압 ≥ 140 mmHg 또는 2회 평균 이완기혈압 ≥ 90 mmHg인 고혈압, 혈당
126mg/dl 이상인 당뇨병, 연령층에 따른 혈액색소와 헤마토크리트를 적용한 빈혈, 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19세 이하 200mg/dl 이상)이거나 중성지방 200mg/dl 이상인 고지혈증. 대상자들
의 질환 인지와 그 관리를 위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교정 효과를 피하기 위해 기 인지 질환자를
제외하고 비 인지 질환자와 비 질환자간의 영양섭취상태를 비교함에 있어, 만성질환의 특성 상
가장 큰 영향 요인이며 완전 보정이 불가능한 연령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30~49세, 50~64세 및
65세 이상의 연령층별로 비교하였으며, 영양권장량 대비 적정도를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4가지
만성질환의 경우에 모두 비 질환자 대조군에 비해 비 인지 질환자의 영양섭취상태가 불량한 경향
이었으며, 특히 미량영양소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평균 섭취량의 차이를 보이는 경
우가 많았다. 대부분 영양소의 평균 섭취량이 질환자에서 낮은 것에 반해, 30~49세 연령층에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질환자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비질환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각각
6450mg, 6118mg vs. 5710mg, $p < 0.05$), 에너지 섭취량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1,000kcal당 나트
륨 섭취량은 모든 연령층의 모든 질환자에서 비 질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층 질환군에서는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 < 0.05$), 50~64세 연령층
은 빈혈과 고지혈증 질환자의 경우에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p < 0.05$). 영양소 섭취량
이 단 1일간의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도출된 결과로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강조하기에는 미진하
나, 이와 같이 본인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영양 섭취상태가 대조군에 비해
열악한 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빈혈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에 대해 불량한 영양섭취상
태가 하나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건강 형평성에 대한 사회경제
요인의 영향이 식생활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며, 따라서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가에
서 우선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적정 영양상태 확보
를 위한 영양지원제도일 것으로 사료된다.